

1.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 노력,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3 학년의 역습]

졸업 논문 대체로 하는 '창의적 재료종합설계'라는 팀 프로젝트 강의를 3 학년 때 수강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공정설계 과정을 미리 경험해보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4 학년들과 한조를 이뤄서 단일 효과를 높이면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세라믹 단열재를 설계했습니다. 시중 제품의 한계를 넘기기 위해 물성의 목표치를 기공률 70%와 압축강도 200kgf 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약 때문에 조원들과 의견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높은 기공률로 제작한 첫 번째 실험에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었고 조원들은 목표치를 낮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원들에게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며 설득하여 다른 학문에 대한 논문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분야의 단열효과향상에 사용되는 구조설계를 시편에 적용했더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무한책임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전정신으로 입사 후에도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2. 타인과 함께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등을 기술하시오.

[8 인이 만든 소박한 '결작']

대학 시절 연극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때 동아리 인원이 부족해서 동아리가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또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할 때 배우와 무대제작 업무를 준비하려면 최소 15 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8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연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뜻이 일치하여 공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배우와 무대 제작팀장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두 배, 세 배 노력했음에도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팀워크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연습을 하고 난 뒤에도 지친 팀원들을 가벼운 술자리로 고무시키면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무대를 제작할 수 있었고, 마침내 공연 직전에 무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제작한 무대 위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공연을 보러온 학생들을 통해 홍보가 되어 다음 학기에 신입 회원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 동아리의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위아에 입사한 후에도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동료 및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현대위아인'이 되겠습니다.

3. 타인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경영마인드 공대생]

제가 가진 경쟁력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생산기술부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역량은 전공과 더불어 경제경영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그 후 경제신문을 정기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스마트경제경영포럼'에 참가하여 국내 다양한 기업의 CEO와 명사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IT 회사의 한 팀장님의 '영재'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영재는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통찰력과 위협을 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라고 새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재들이 소외계층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통찰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역량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입사한 후에도 그 노력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로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키며, 나아가 인류사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4. 입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독자적인 자동차부품]

대학 시절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곤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부품소재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방송이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내 제조업 회사들의 부품은 해외 의존성이 높았기 때문에 부품소재의 자급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때부터 재료공학도로서 부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 관심을 바탕으로 자동차 매니폴드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설계하는 교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엔진의 효율 향상으로 인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매니폴드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강재에 산화물을 분산시켜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산화물이 고르게 분산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무전해 도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적용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철야금학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의 적극성과 문제해결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산기술부서에서 이런 장점을 발휘하여 기본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